

연 중 제 30 주 일
(전교 주일)

기도서 P. 464 C해

1독(집회35, 15b-17. 20-22절)
2독(디모후 4, 6-8. 16-18절)
복음(루 가 18, 9-14절)

숲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이	수	협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감론□



높고 낮은 세계

이 대 권 신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입니다” (루가. 18장 14절). 인류역사를 통하여 높고 낮음의 世界의 역사는 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흐름의 세계 안에 호홉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 숨가쁜 맥박이 뛰고 있다.

오늘 우리들이 맞이한 전교주일에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 발전시킬 우리네들은, “높고 낮은 세계”에서, 어느편에 속하여 생활하고 있는지 각자 자기 반성을 통하여, 자기 진단을 좀 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심의 청진기를 꼭 바로 대고 “높음과 낮은 세계”의 고동(鼓動)의 감도(感度)가 어떠한지? 바리사이파 사람의 교만한 기도와 세리의 결손된 기도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우리사이에 어떠한 공감(共感)을 주는 교훈과 실천되어야 할, 바람직한 수훈(垂訓)인지? 교만과 겸손의 역사는 천지 창조때부터, 세계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며 천사로부터 인류시조로부터 “높고 낮은 세계” 즉 천국과 지옥의 세계로, 분리시켜 “선악의 세계” “상벌의 세계” 그리스도 제림의 심판(審判)의 세계로, 종지부를 찍게되고 말것이다. 개인, 집단, 국가 사회, 가정, 교회, 민족 사회에 있어, 이 “높고 낮은 세계”의 투쟁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서, 계급투쟁이, 계속 되며 개인, 집단, 민족 사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칼라에, 성자 그리스도의 결손된 구속사업이 필연적이었고, 이 사업이 바로 전 인류가 영원히 소생할 수 있는 길이었으리라. 그로 인하여 그사업이 생명의 길이 되어 암흑세계(교만)서, 새로운 광명의 세계(겸손)로의 터전이, 마련되었으리라! 이 사업이 사도들을 통하여 유구한 인류역사에, 공헌한바 크며, 그 사업이 바로, 오늘 맞이하는 주님의 전교사업임을, 제삼, 제현(再現), 계속하려는 것이, 오늘의 전교주일의 목적인 것이다. 이 작업의 방법이 바로 “높은 세계와 낮은 세계”의 균형을 잡는데 있다고 본다. 이 균형은 바로 인간 평등, 즉 인간의 존엄성이며 그 결과는 경제 균형, 사회복지 “믿음의 세계” “사랑의 세계”가 건설되리라고 본다. 옛시인의 낭만적(浪漫的) 세계의 시구(詩句)가 말하리라. “청풍명월 응불갈”(淸風明月用不渴) “고산유수정상투”(高山流水情相投) 청풍명월은 아무리 보아도 지치지 않고(갈증이없고), 높은 산과 흐르는 물은 서로 정답게 쳐다보고 있다. 우리전교 사업이, 바로 이렇게 다정다감(多情多感)한 세계가 이뤄져 분양실의 세계로 돌아가면 좋으련만! <높은 세계와 낮은 세계가 균형이 잡히는 세계로 돌아가기를 두손 모아빌면서 너도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잘 살아보세! 노래 부르자!

(숲정이 성당 주임신부)



5원을 지킬 권리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요금이 올랐다.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는 너무나 전문적인 수치가 돼서 잘 모르겠고,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여겨져 그 게 탈이다. 다만, 항상 믿음직스러운 당국의 말에 위안을 받으며(?) 밝은 내일만을 그리며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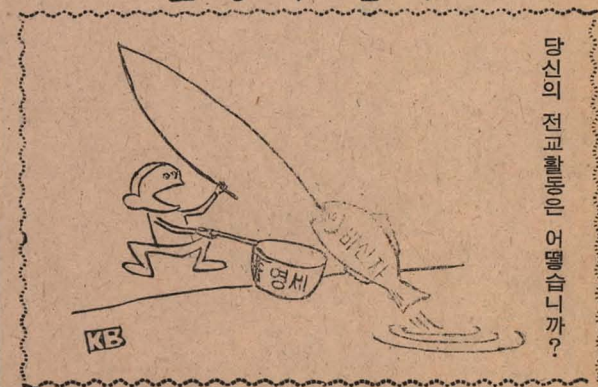
문제는 아침 저녁으로 닦치는 “내 권리 찾기”에 하루의 시작과 끝이 찻점한 일인 것이다. 고시된 요금 인상표에는 내가 오르고 내리는 「서당리」라는 곳이 분명 45원인데도 50원을 받아야겠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요금이 인상된 날 아침에는 무엇이 뭘지 몰라서 50원을 주었으나, 이제 요금표를 보고 안 이상은 “내 권리 내익이 5원을 뺏길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당국의 책임자가 전북신문에 밝힌 바로는 전주시의 경제까지가 1주간이고, 그로부터 4km마다 새로이 구간이 있는데, 실제로 찾속에서는 그때문에 시비를 해야 한다 신문 보도를 보아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비하기가 싫어 그만 두었다는 것이다. 낱과 언짢은 말을 주고받기 싫어 하는 한국인의 기질, 아니 전라도인의 기질이랄까?

하여튼 정해진 요금을 주고 받아야 한다. 덜 주어서도 안되고, 물론 더 받아서도 안된다. 50원을 내라는 승무원들의 주장은 옛날 요금에 5원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심지어 요금표를 보자면 이상한 눈빛으로 보기까지 한다. 이래서야 어디 요금인상에 따라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는 당국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단돈 5원이지만 이 조그만 일에서부터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그래야 우리가 비록 오늘은 고달프더라도 내일은 웃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심지어 전주 서당리 간을 3구간으로 해서 요금을 받았다는(확인증)을 써가며 내 권리를 찾은 일이 하도 씩씩해서 소리쳐 본다.

숲정이 산책



당신의 전교활동은 어떻습니까?

이 책을 읽어 봅시다

책을 가까이 할 때가 아니겠어요, 지금이?

그래서 몇 권의 책을 소개해 봅니다. 이 책은 바로 서원에서 골라 주었습니다.

바로 서원에서는 지금 전주 시내 모든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도서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해성고등학교 김성원 교감 선생님의 주선과 협조에 서원식구들은 모두 감사하고있어 덧붙여 보았습니다. (편집자)

- 신집 서적 □
- 사막에서의 편지**
카를로 카페토 지음, 진상조 옮김.
3×6판, 177면, 450원. (성바로 출판사)
-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미셸 파스트 지음, 최귀동 옮김.
3×6판, 268면, 550원 (성바로 출판사)
- 침묵속에 떠오르는 소리**
에르네스토 카르테날 지음, 김영무 옮김.
4×6판, 282면, 1000원. (분도 출판사)
- 성프란치스코의 발자취**, 최정오 옮김
4×6판, 145면, 680원. (분도 출판사)
- 눈 꽃**
네메세기 지음, 김종진 옮김.
4×6판, 291면, 800원 (가톨릭 출판사)
- 성서 교리 서적 □
- 그리스도의 가르침**
K로울러의 편저, 오경환 옮김
국판, 587면, 1900원 (성바로 출판사).
- 당신은 성서를 어떻게 이해 하십니까**
게르하르트 로핑크 지음, 허철 옮김
국판, 189면, 1600원 (분도 출판사)
- 예수의 비유**
에레미아스 지음, 허철 옮김
국판, 253면, 1500원 (분도 출판사)
- 성서의 근본사상**
율리우스 아브리 지음, 김순창 옮김
4×6판, 337면, 850원 (성바로 출판사)
- 합본 북을서**
백민관 편역, 4×6판, 311면, 650원 (성바로 출판사)
- 아동 도서 □
- 쌍구네 집**
강정규 지음, 4×6판, 162면, 650원. (성바로 출판사)
- 하늘빛 옥구슬**
이석현 편역, 4×6판, 177면, 350원. (성바로 출판사)
- 신구약 성서 이야기**
마리아 제베로사 지음, 박홍근 옮김
국판, 168면, 1200원 (성바로 출판사)
- 말더듬이 호도매**
웨리나사리 지음, 이명훈 옮김
국판, 91면, 1200원 (성바로 출판사)
- 기적의 도시락**
최익철 지음 4×6판, 314면, 1200원. (성바로 출판사)
- 중 고생을 위한 도서 □
- 다니의 일기**
미셸 파스트 지음, 남궁연 옮김
4×6판, 322면, 680원 (성바로 출판사)
- 꿈일듯 이어지는**

- 신지식 지음, 4×6판, 278면 680원 (성바로 출판사)
- 성공과 행복의 열쇠**
앨런 지음, 김학성 옮김, 3×6판 260면, 380원 (성바로 출판사)
- 블타는 신록**
구혜영 지음, 4×6판, 219면, 520원 (성바로 출판사)
- 길은 여기에**
미우라 야야쵸 지음, 이종항 옮김
4×6판, 291면, 350원 (설우사)
- 청년, 대학생을 위한 도서 □
- 고백록**
아우구스티누스 지음, 최민순 옮김
4×6판, 412면, 1200원 (성바로 출판사)
- 현대사조와 문학**
김동길, 김남조 외,
4×6판, 255면, 870원 (성바로 출판사)
- 어떤 정치적 인간의 초상**
츠바이크 지음, 강희영 옮김
4×6판 31, 5면, 1200원 (분도 출판사)
-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포울리스 지음, 김영무 옮김
국판, 113면, 750원 (분도 출판사)
- 세계철학사**
슈티락히 지음, 임석진 옮김
국판, 381면, 1950원 (분도 출판사)
- 일반 교양 도서 □
- 밝아오는 새벽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돈 다우드 지음, 박용언 옮김
4×6판, 347면, 800원 (성바로 출판사)
- 고독한 자에게 보내는 키스**
프랑소아 모리악 지음, 오종자 옮김
4×6 판, 183면, 490원 (성바로 출판사)
- 무상을 넘어서**
김홍섭 지음 4×6판, 5×1면 1200원 (성바로 출판사)
- 고독에의 도전**
고바야시 아리카다 지음, 홍윤숙 옮김
4×6판 240면, 660원 (성바로 출판사)
- 아낌없이 주는 나무**
셀실버스타인 지음, 김성무 옮김
국판, 68면, 500원 (분도 출판사)
- 정기 간행물 □
- 경향잡지 (월간)**
200원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 소년 (월간)**
250원 (가톨릭 출판사)
- 신학전망 (계간)**
700원 (대전신학대학)
- 사목 (격월간)**
400원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M^cGREGOR

☆ 삼성물산 ☆

맥그리거

전 주 특 약 점

고급화된 기성복 (성인용, 아동용)

유 소 연 (울리안나)

☎ ② 4 4 5 1 품년제과 분점앞



알루미늄 백철 합금 통주물 제품입니다
수압 2kg/cm, 두께 0.5~6cm 로써 안전함
취사와 난방 겸용하여 연료절약 50%임
시공과 사용이 간편하며 캐쉬워쉬 100%방지
만능 보조 급수 탱크가 특징입니다

한 일 연 탄 온 수 보 일 러

박 성 안 (소시오)

부안읍 서외리 2구 동양극장 앞 ☎ 1004 번



□ 성서교실 ㉔ □

필립 비서

박 상 팔

저자와 수신인: 필립 비서는 수신서간(필립비서, 골로사서, 빌레몬서, 에페소서)의 하나이다. 이 수신서간들은 감옥에서 쓰여진 것으로, 그 당시 역사적 상황과 어려움을 전하고 있으며 바울로의 자유와(필립4, 10-13) 기쁨까지도 증명해 준다(필립서1, 4).

18). 필립 비서는 당시의 서간양식을 따라 서문에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을 밝히고 간단한 문안의 인사말로 시작된다(1, 1-2). 이 서간의 저자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로"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오의 이름도 첨부해서 같이 쓴 것으로 했다. 아무튼 성서학자들은 바울로의 친작이라는 데 일치하고 있으며, 디모데오의 바울로를 도와서 필립비 교회를 창설했으며, 여러가지 문제를 같이 숙고하고 필립비 교회에 큰 관심을 가진 인물로 바울로의 이 편지에도 참여한 것으로 본다. 이 서간의 수신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그 보조자들"(1, 1) 즉 필립비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다.

집필연대와 장소: 많은 성서학자들은 다른 서간과 마찬가지로 이 필립비서도 바울로의 여러가지 편지를 한데 모아 한개의 편지처럼 편찬한 것이 아닐까한다. 그러기에 정확한 집필연대와 장소를 밝히기는 어렵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현재의 필립비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데 첫째부분(1, 1-3, 1a; 4, 2-7, 10-13)은 기원후 55-56년경에 에페소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둘째부분(3, 16-4, 1, 8-9)은 56-57년경 고린토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본다.

집필동기: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필립비 교회는 바울로가 수감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에게 필립비 교회의 일꾼인 에바프로디도를 보내어 시중을 들게 하고 동시에 참된 사랑의 선물(돈과 의복)을 전달하게 하였다. 에바프로디도는 거기서 거의 죽기까지 병이 들었으나 무사히 완쾌되었다. 바울로는 에바프로디도를 다시 필립비로 보내면서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하였다(2, 25-30).

내용과 신학: 필립 비서는 바울로가 특히 사랑하던 필립비 교회와의 친교와 일치를 잘 나타낸 서간이다. 바울로는 진정으로 이 교회를 사랑했으며 복음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늘 거부해 오던 물질적인 협조도 이 교회에서만은 받아들였다(4, 15이하). 이 서간에서 바울로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필립비 교회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또한 고통 중에도 복음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고(1, 27-30) 서로 합심하여 결양할 것을 간절히 권유하고 있다(2, 1-11, 4, 2-9). 아마 공동체안에 생긴 싸움과 분열 때문에 이러한 권유가 필요했던 것 같다. 이에 바울로는 필립비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그분을 본받을 것을 요청한다. 특히 2장 6~11절에서 바울로는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본질을 같이 하셨으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영광으로 높으심을 받으셨다는 교회의 전체적 찬미가를 제시한다. 바울로는 공동체의 화목한 봉사과 순명을 권유하기 위해 그 찬미가로써 호소할 것이다. 또한 바울로는 유대적 그노시스이단자들에 대해 날카롭게 경고한다. 그는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이므로(3, 18이하) 이단자들이 제시하는 모든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며 참된 신조와 순수한 교리만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이다. 특히 필립비인들이 보여준 신의와 사랑은 바울로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었다(4, 10-20) 또한 이 서간에서 바울로는 그리스도만이 자기생애의 전부이기에 감옥생활 가운데서 기쁨과 자유를 누렸다.

요심이 (221) 김병모



□ 아동복 전문 □

까지의 집

이 윤례 (테레사)
남중학교 정문 옆
(남노파출소 ↔ 동부시장)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세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육교옆 중앙시장통
(전화 ㉔ 4577)

◎양심을 찾아

카메라 대여, 학교 각종 사진 출장

중앙사진관

한 원 규(야고보)
이리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교 입구 전화 7901

□ 현대 칼라 특약점 □

태양사

김 스테파노 (종범)
—특수 촬영 기술 무료로
—고급 카메라 대여, 수리전문
—회갑·결혼 야의 칼라사진출사
—각종 칼라 필름 판매
정읍 소방서 앞 ☎ 5404번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광사

(구 태양사)
유 영 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5116, 6114, 3547번

공
지
사
항

※ 오늘은 전교주일...전교 사업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껏 봉헌 합시다

1. 정의 평화미사 (25일<화>오후 7시반, 중앙성당)
2. 77년도 사목 평가 및 78년도 사목계획 수립 (25일 10시-17시, 센타 회의실) 각 본당신부·사도회장 연석회의
3. 신부 전체 회의 (26일 10시-17시, 센타 회의실)
4. 전북 성 빈첸시오 이사회 발기총회 (11월 26일<토>오후 5시, 신태인 본당)
 - 전남 해남본당 순례단, 숲정리와 누갈다묘지등 참배하고 정화사업을 위해 써달라고 일금 10,000원기탁
 - 정승현 신부님 주소 (Fr. Joseph Cheong / c/o Miss Lieke / 1438 Gen. Luna Str. / Paco, Manila Philippines)
 - 서해 방송 안내...「생활 종교」 23일 아침 7시 40분, 김 진소 신부
「사색의 오솔길」 매일 밤 11시 30분, 김준호 신부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북

1. 상지회 세미나: 오늘 오후 2-5시, 강당
※ 지참물...성경, 성가집, 필기도구
2. 전교회 가입비: 500원 (1년분)
3. 성탄 영세일: 12월 10일<토>
4. 미사시간에 성경, 성가집 지참합니다
5. 첫 영성체사진 사무실에서 찾아가세요
6. 성모상 환경미화 (제대, 나무, 자재)에 협조바람
□ 지난주 봉헌금: 117,955원

(노송동)

전화 ③ 370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박
사도 회장 박종

1. 모든 교우님들, 전교회에 가입합니다.
보통회원 500원이상(1년분)
2. 예비자 면담: 27일 오후2-5시. 8-9시
※1 단계 영세식-30일 오전 10시반 미사후
3. 내일부터 미사시간 변경아침-6시반, 저녁-7시
어머니미사-〈금〉오전 10시반
4. 영원의 샘 피정: 30일 오전 6시반, 남녀 청장년을
위해 프란치스코 연합 지도 신부님(최정오, 마리노)
의 지도로 1일 피정을 합니다
준비물-도시락, 미사도구, 참가비(1천원),
접수-29일까지 사무실에
□ 축 결혼! 염규수 군, 오정남 (세시리아)양,
29일오전 11시
□ 지난주 봉헌금: 52,18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미사시간 변경: 주일...오전 6시반, 9시(아동), 10시
(공식) 평일...〈월~목〉-오전 6시반, 〈금〉-오전 10
시, 토요일특전 미사-저녁 7시반
2. 교리 시간: 〈금〉오전 10시반-어머니, 노인
〈토〉밤8시반-직장인, 학생, 지성인
3. 유아세례: 매월 첫째 금요일 오전 9시
4. 아동 체육대회: 종합 1위, 수고하셨습니다
5. 성서 대금 속히 완납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37,425원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파티마의 성모상 가정방문: 23일-진유리안나, 24일
-박흥기, 25일-정안나, 26일-봉수산나, 27일-김
수경, 28일-최소피아, 29일-김정례, 30일-이상기
2. 주일학교 체육대회에 응원과 협조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43,685원 정성껏 봉헌합니다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훈

1. 청년화: 오후 7시반
2. 어머니회 미사: 27일 〈수〉오후 2시
3. 학생화 미사: 26일〈수〉오후 7시반
4. 천주님께 약속한 교무금 봉납하여 본당 어려움을
해쳐나갑시다
□ 지난주 봉헌금: 38,100원 감사합니다

(숲정미)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반상화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서신동-1구 2반(25일밤 8시), 2구 2반(27일 밤8시)
진북 2동 8반(29일밤 8시)
2. 중고학생 치명자산 참배: 다음주일 오전 9시출발
지참물-묵주, 기도서, 성가집
3. 중고생 미사(매<토>)에 빠짐없이 나오세요.
미사후 성가연습
4. 성가연습: 주일 미사 후
※ 애령회에 회사 감사합니다. 태평동 이상신씨 1만원
□ 지난주 봉헌금: 65,036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섭
사도 회장 유석중

1. 성지순례: 30일 오전 8시, 복자 김 안드레아 신부
경당(용인 자연농원 경유)
2. 예비자교리: 주일 9시미사후 (이수녀님), 10시 미사
후(장수녀님), 〈수〉 7시저녁 미사후(보좌 신부님),
〈금〉 7시 저녁미사 후(주임 신부님)
3. 새성당 소식, 내부 미장 공사 중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5,020원